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불교계 어떻게 보나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에서 치료용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5월 20일 발표는 전 세계 학계를 흥분 속으로 몰아 넣었다.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것은 곧 면역 거부반응 없는 배아줄기세포 생산이 가능해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생산 과정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천주교·개신교 등이 '인간생명의 존엄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 문제가 종교계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불교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아 죽이는 행위 악업 - 선업 난치병 환자 치료

연구 의도와 활용면에 '무계'



후가 돼야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이 사회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배아는 생명체인가

'우리도 처음에는 배아였다'며 배아가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계와 달리 불교학자들은 배아를 생명체로 규정하는 데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중표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아의 어느 단계부터 생명이라 할 것인지 논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며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비판하는 기독교계의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논리에는 못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제일 원인은 인간중심주의"라고 지적하며, "소·돼지 등이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현실에서 '세포'의 죽음만을 문제 삼는 것은 '팬텀스핀 호들갑'이다"고 말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비판하고, 전면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배아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대문명사회 전체를 비판하면서 줄기세포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인

용어설명

배아(embryo)

난자와 정자가 만나 이뤄진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까지의 단계

줄기세포(stem cell)

신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본세포. 모든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세포라 불림. 줄기세포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음. 줄기세포를 배아로부터 얻으면 배아줄기세포, 성체로부터 얻으면 성체줄기세포가 됨.

사회적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철 교수도 "배아를 죽이는 악업과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업의 측면, 양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스스로 악업의 과보를 짊어지면서 자비심을 발휘하는 황 교수의 활동은 오히려 숭고한 측면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 신중한 입장정리 필요

생명을 조작하는 것을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금지시키는 기독교계와 달리 연거푸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에 있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단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불교계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종교학)는 "종교와 과학의 두 지식체계는 역할과 위상이 상이하다"고 전제한 뒤 "과학지식에 의해 종교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듯, 종교는 과학을 규제하려 들기보다는 조언을 하고 견제하면서 과학과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배아 생명체 규정 여부 불교학계 이견

세포 죽음만 문제 삼아선 안돼... 생명경시 반성해야

과학 규제 말고 조언·견제하며 공존을

또 김중욱 동국대 교수(불교학과)는 "생명이란 기능면에서 접근해야지 실제화해선 안 된다"며 생명의 개념에 선을 그리는 시도에 대해 경계했다. 김 교수는 "생명체 여부를 가리기 모호한 배아에 대해 알기위해보다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더 큰 차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만연 동아대교수(인문학부)는 <불설포태경>에 따르면 14일이 지나 착상된 수정란은 초육(初肉)이라 부르지만, 1·2주차 배아는 움직이지 않는 타락죽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며 "배아는 인간의 가운뎃살 뿐 온전한 생명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과)는 "불교는 전통적으로 배아를 생명체로 간주했다"며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생명 존엄성 훼손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간중심주의의 편협함을 면하기 어렵다"며 기독교계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 중요한 것은 연구의 의도

이들 불교학자들은 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 자체를 놓고 선·악을 단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의도로 연구하며,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중표 교수는 "독을 약에 쓰면 약이 되고,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 선·악은 관계 내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불교"라며 "연구성과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중욱 교수 또한 "황 교수의 연구는 업을 짓고 있는 것"이라며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선업의 의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5>

행복의 과학

기도할 때 무엇을 빌어야 할 것인가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철 스님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라 했다고 한다. 나와 타인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보다 훨씬 마음이 와 닿는 말이다. 절대자의 존재가 그 종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종교들과 비교할 때 불교 만큼 각자의 행복에 초점을 둔 종교가 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많지 않다.

'부처님'의 본래 뜻은 '깨달은 자, 행복한 자, 그리고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에게서 느껴지는 무한한 행복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스승이 가르쳐 주는 이론보다도 스승의 눈빛에서 우

니즘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주로 대뇌 부분로 들어가는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시상부(변연계의 신호전달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 그리고 종교적인 황홀감까지도 분자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심리학적 방법은 행복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준다. '자신이 행복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인 행복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서구 대학생들은 '친구와 잘 지내는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남보다 특별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

뇌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행복' 분석

행복은 추구하는 것일까 깨닫는 것일까

러나오는 자비에 더 매혹됐을 것임에 틀림없다. 눈에 찔발을 세운 채 흥분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표정을 한 이를 두고 '행복한 자'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과학은 행복까지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방법은 대략 두 가지로 이뤄진다. 하나는 화학물질과 전기신호에서 법칙을 찾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행동양식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류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정신 신경학의 방식이라면, 후자는 심리학이 취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행복을 화학적인 물질과 전기신호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뇌의 신경학적 메커

니즘이 특별히 종교적이기도 않다는 점이다. 행복은 종교보다도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과거 사람들의 행복도와 현대인의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또한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행복할 것은 아니라는 현인의 가르침을 확인해준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한 미래를 영원히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의 '미래심 불가득(未來心 不可得)'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서 '불행한 나'를 들여다보아, 큰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 불행을 느끼고 있는 나 자체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



그림 : 문명성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

-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 6. 1(수)~17(금)
- 전형 일자 : 2005. 6. 25(토)
- 전형 방법 : 서류·면접 전형
- 합격자 발표 : 2005. 6. 29(수)

모집 학과 전공

- ◆ 문인사화학과
사회예술학전공 / 옷질조형학전공 / 예술경영학전공
◆ 불교문예학과
불교문예학전공 / 동방미술사전공 / 요가명상학전공
◆ 민속문화학과
역경풍수학전공 / 무속민속학전공 / 자연치유학전공

석사과정 수업연한 : 2년(4학기)
학사학위가 없는 분을 위하여
학과전공별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 전문가 최고위 특별과정

웰빙시대의 자연치유 최고전문가 양성 기관

- 1. 접수 및 개강일
1) 접수일 : 2005년 6월 1일 - 6월 30일
2) 개강일 : 2005년 7월 5일 [화요일]
2. 교육과목
- 음양오행연구, 오행식이오법, 경락경혈연구, 요가명상연구, 체형교정요법, 단전호흡연구, 기공체조연구, 민간자연요법, 교양 특강
3. 과정·수업방법
1) 1년 과정 [2학기] : 총30주 강의
2) 화·금 : 18:30 ~ 21:00
4. 수강대상·정원
1) 의사·한의사·약사
2) 제약업·보건업·실버산업 종사자
3) 의학관련 대학생·대학원생
4) 관심있는 일반인 ※ 정원 : 30명
5. 제출서류 및 등록금
1)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2)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3) 1학기 등록금 : 2,300,000원
6. 기타사항
1) 총장명의 자연치유 전문가 수료증 수여함
2) 자격 검정 후 자연치유사 민간자격 부여함
3) 본 대학원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 부여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 3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승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려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법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법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승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승암스님의 법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과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Rows include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연구반.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